오늘의 게시판

기초질서지키기 봉사단 발대식 오후 2시 광주시청 대회의실

행사 〈1일〉

▲광주·전남경총 금요조찬연수회=오전 7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최근 노동정책 현안과 과제'에 대해 강연.

▲제 132회 강진 다산강좌=오전 10시30분 강진군 문화회관. 임효재 서울대 명예교수가 '고고학상으로 본 한·중 문화'라는 주제로 강연.

▲2006년 장애인 송년큰잔치 및 부부합동 결혼식=오전 10시30분 무안군 백제고.

▲기초질서지키기 봉사단 발대식=오후 2시 광주시청 대회의실. 자원봉사자 등 650명으로 이뤄진 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환경 정화활동 등 봉사활동 전개.

▲무궁화꽃 소녀 출판기념회=오후 6시 광주시 히딩크호텔. 21세기 국제교류회 공동대표 윤동욱 씨의 번역한 책 출판 기념회.

▲제 4회 광주시 서구 어린이 예술제=오후 6시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20개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참여해 경연.

▲제 4회 무안군 친환경 유기농업대회=오전 11시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무안군 친환경 유기농업협의회 주최로 무안군에서 재배, 생산된 유기농산물 전시.

공연

▲윤미경 Liederabend=1일(금)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어린이 캐릭터 뮤지컬 '파워레인저 매직포스'=2일(토) 오후 2·5시 3일(일) 오전 11시, 오후 2·5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한마음 한소리 합창단 창단연주회=2일(토)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전시

▲진월 금속 조형회전=4일까지 무등예술관 본관.

▲나래울 회원전=6일까지 무등갤러리 신관.

▲중국 영남 현대미술 작품전=1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1층.

▲선동인전=7일까지 광주 향토문화센터 3층 오월문학관.

▲기독교 미술협회전=6일까지 상계갤러리. 광주기독교 미술인협회전.

▲스페인, 세기의 거장전=3일까지 광주신세계 갤러리. 파블로 피카소, 후안 미로, 안토니 타피에스 등 스페인 유명작가 작품 40점 전시.

▲광주대 사진영상학과 작품전=1일까지 광주대 예술대 3층 갤러리, 중앙도서관 세미나실.

▲광주비엔날레 기념 '손아유전'=3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2층.

▲동양척식회사 복원기념 특별사진전=목포시 중앙동 2가 6번지 구 동양척식회사. 목포시가 수집한 사진 200점 전시. 올해 말까지.

▲청색전=12월5일까지 자미갤러리. 정향심, 송화영, 이지호, 이준이씨 작품 전시.

▲HONGIK-2006전=12월7일부터 13일까지 문화갤러리. 홍익대 출신 광주전남 미술인전.

▲하성흡 오픈스튜디오전=12월18일까지 갤러리 사람사는 세상. 한국화가 하성흡씨의 개인전.

▲내 마음 속의 풍경=12월3일까지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광주.전남 수채화협회 회원전.

역사속의 오늘

▲우측통행(1906년 실시)을 좌측통행으로 변경(1921)

▲광주일보, 대구매일, 부산일보, 경남매일 창간(1980)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인수(1998)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2007년 신차 줄줄이…어떻게 고를까?

MC 유재석과 MBC 나경은 아나운서의 열애 소식이 인터넷을 달궜다.

유재석은 최근 MBC '무한도전' 촬영장에서 "나씨와 교제한 지 4개월됐다"면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유재석과 사귄다는 MBC 나경은 아나운서의 얼굴을 비롯, 왜'마봉춘'으로 불리는지를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이 많았다.

나 아나운서는 유재석씨와 함께 출연하는 '무한도전' 프로그램에서 출연진들이 궁금증을 느낄 때마다 "사내방송입니다"라며 해설해 준다.

이때 해설을 마친 마지막에 "MBC"라는 멘트를 하는데, 이를 두고 '무한도전'출연진들이 자기들끼리 "'MBC'라는 말이 아나운서의 이름 이니셜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붙인 이름이 '마봉춘'이다. 'M=ㅁ, B=ㅂ, C=ㅊ'식이다.

전북 익산 지역 농장에서 발견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도 무더기 클릭 세례를 받았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네티즌들은 "섭씨 75도 이상에서 5분이상 가열하면 바이러스가 죽기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면서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주몽' 역의 송일국과 김정난의 결별설도 화제가 됐다. 송일국과 김정난은 지난 2002년 KBS 아침드라마 '인생 화보'에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으며, 열애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계의 공개 커플로 관심을 모았지만 최근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격 차이 외에 구체적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배우 김옥빈의 섹시 댄스도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김옥빈은 '2006 M-net KM 뮤직 페스티발'광고 동영상에서 가슴선과 각선미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섹시한 댄스를 선보였다. 네티즌들은 이 동영상을 퍼나르면서 한때 각종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외 내년에는 국산차는 물론 수입차까지 무려 50여종의 신차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2007년 새로 나올 차의 디자인, 성능·가격 등을 궁금해 하는 네티즌도 많았고 국군포로의 절박한 도움 요청 전화를 확인도 않고 짜증스럽게 거절한 '대사관녀'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특히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는 대사관녀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빗발쳤고, 대사관녀가 전화를 받은 중국대사관에 항의를 하자며 대사관 전화번호까지 유포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주간 급상승 검색어 〈네이트 닷컴 제공〉

1위	유재석 열애설	6위	대중교통요금
2위	괴력의고딩들	7위	2007 신차
3위	조류인플루엔자	8위	황진이춤
4위	송일국 결별	9위	MKMF
5위	김옥빈댄스	10위	80년생미녀

배우 김옥빈이 최근 과감한 의상으로 섹시 댄스를 선보여 네티즌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뉴스퀴즈

40. 최근 열린 제 5회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 이 영화가 감독상 등 6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날 시상식에서 작품상·감독상·촬영상·조명상·시각효과상·음향상 등 6개 부문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1천300만명의 관객을 동원, 한국 영화사상 흥행 기록을 다시 쓴 이 영화는 역대 개봉일 최다 관객(45만3006명) 등 각종 신기록을 쏟아내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무슨 영화일까요.

① 괴물 ② 타짜 ③ 비열한 거리 ④ 짝패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일(음 10월 11일 甲子)

子 36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신사가 발생한다. 48년생 옛일이 나를 괴롭힌다. 60년생 외부의 일이 소란사로 변하니 세심하게 살펴보라. 72년생 처음에는 고통스러우나 나중은 편하리라. 84년생 착실한 전진이 있다. 행운의 숫자 : 07, 34

丑 37년생 협조자는 있으나 결과는 반반이다. 49년생 세 번 생각하고 말하라. 61년생 옛 감정은 빨리 털어버리면 새로운 정이 솟아난다. 73년생 말다툼이 송사로 비화 된다. 85년생 애인에게 용기를 북돋우라. 행운의 숫자 : 20, 40

寅 38년생 차 조심 사람조심. 50년생 미운 사람과 좋은 사람이 생긴다. 62년생 아늑한 보금자리이나 불편한 사람이 같이 있다. 74년생 가정과 직장사이에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행운의 숫자 : 09, 26

卯 39년생 협조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일을 추진해간다. 51년생 적장을 포로로 잡은 격이니 큰 상이 있을 수다. 63년생 의외의 돈은 쉽게 사라진다. 75년생 독신자는 새로운 연인을 만나니 준비하고 있으라. 행운의 숫자 : 14, 16

辰 40년생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으니 분수를 지키라. 52년생 하루가 평안하니 주위를 둘러보라. 64년생 자녀가 떨어져 살아야 할 경우가 생기지만 좋은 일이다. 76년생 고개를 숙여서 땅을 한번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12, 38

巳 41년생 지속적인 안정이 있고 재복으로 가도안정을 찾는다. 53년생 멀고 긴 여행으로 신뢰를 잃었으니 주변인들에게 믿음을 쌓으라. 65년생 과욕만 없으면 결과는 좋으리라. 77년생 보고 싶은 사람이 찾아온다. 행운의 숫자 : 03, 29

午 42년생 가도안정에 힘을 쓰면 권부가 함께 온다. 54년생 방풍림은 남자가 만들어야 효과가 있다. 66년생 이성 보다 친구를 만나라. 78년생 남을 높이면 자신도 올라가니 주변을 칭찬하라. 행운의 숫자 : 15, 45

未 43년생 집안은 평안하고 집 밖은 시끄러우니 말다툼을 조심할. 55년생 부부사이에 이해있는 대화와 자녀를 살펴보라. 67년생 이웃을 살펴보라. 79년생 개인의 절약은 국가 경제로 통한다. 행운의 숫자 : 20, 45

申 44년생 精神的 不便이 발생하고 부부갈등이 연발할 수 있다. 56년생 일에 불편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처신을 잘하라. 68년생 친인척의 변동으로 걱정이 생길 수도 있다. 80년생 계획한 모든 일은 잘 이루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21, 16

酉 45년생 가까운 인사들로부터 기만을 당하거나 금전피해가 있다. 57년생 허황된 문서만 조심하면 대손은 없다. 69년생 만나는 사람마다 오래가지 못하니 선택을 잘하라. 81년생 세상에 극복되지 않는 어려움은 없다. 행운의 숫자 : 05, 31

戌 46년생 어려워 보여도 쉽게 해결난다. 58년생 수하인과의 동업은 절대 금하라. 70년생 간장과 위장의 평안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보라. 82년생 새 문서를 친구가 가져오나 자세하게 검토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08,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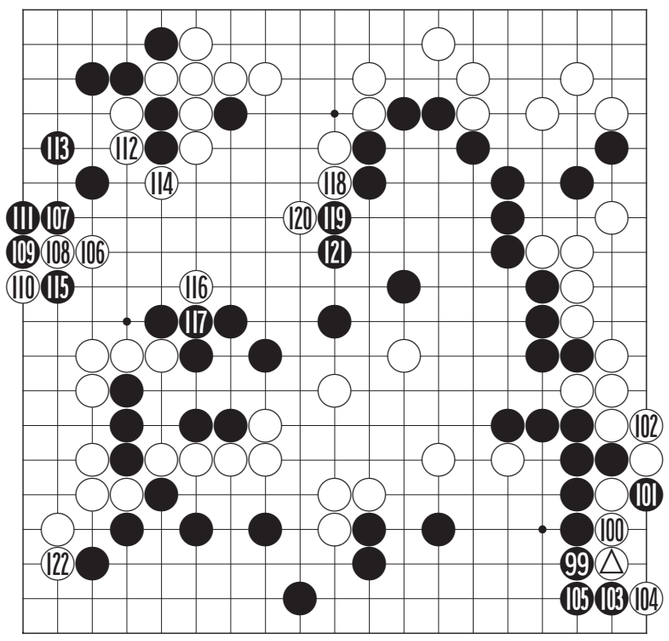
亥 47년생 가득 찬 창고가 모두 내 것은 아니다. 59년생 정은 있으나 만나지 못하고 안타까울 뿐이로다. 71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내실 있게 결정 난다. 83년생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행운의 숫자 : 17,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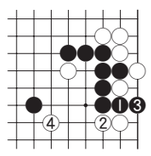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엄청난 빵때림 6보(99~122)

白 이강민 5단 〈PGA생명〉 黑 유병수 5단 〈포스코〉





〈참고도〉

백 △가 절묘한 이유는 흑이 '참고도'의 1로 뚫었을 때 백 2로 미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 4로 뛰면 이 백을 잡을 수 없다.

이강민 5단은 교묘한 수를 발견하여 104까지 기분좋게 선수끝내기를 해치운 다음 106으로 달려가서 추격에 불을 당기고 있다. 아직도 흑이 두터운 것은 사실이지만 백의 맹추격에 유 5단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같은 여파는 바로 다음 나타난다.

흑이 107로 선수한 것 까지는 좋았으나 109로 젖혀간 것이 불필요한 수로 대악수가 되었다.

이 5단이 즉시 112로 흑의 실수를 응징하여 죽었던 돌을 움직여 나오자 응수가 없다.결국 눈물을 머금고 113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어 114로 엄청난 빵때림을 당하고 말았다. 이래서는 바야흐로 역전분위기. 이 5단은 신나게 118로 민 다음 122로 들어가 흐름을 타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RA 한국마사회

바둑소식

박지은·김혜민 대리배 쟁패

박지은 6단이 지난달 29일 중국위기협회와 운남성(雲南省) 대리(大理)시 인민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대리배 세계여자바둑선수권대회 준결승전에서 루이 나이웨이 9단을 159수 만에 흑 불계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김혜민 4단도 김은선 3단을 255수 만에 흑 5집반으로 따돌리고 결승에 합류, 박 9단과 패권을 다툰다. 결승 3번기는 내년 5월께 열릴 예정.

중국측이 창설한 세계여자바둑대회인 대리배는 중국 8명, 한국 6명, 일본 6명, 대만 1명, 미국 1명, 유럽 2명 등 모두 24명이 출전하는 개인전이다. 우승상금은 1천3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788>

Anything I can help you with?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A:The party's great. What are you doing back here in the kitchen?
B:I have a few things to finish.
A:**Anything I can help you with?**
B:Sure. There's a salad in the refrigerator. Please set it on the buffet.

A:그 파티, 정말 굉장하네요. 당신, 여기 주방 뒤에서 뭘 하고 계세요?
B:마쳐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어서요.
A:**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B:예. 냉장고 안에 샐러드가 있거든요. 그것을 뷔페식탁 위에 올려 주세요.

"Anything I can~?" : Is there anything I can~의 생략형이다. 때문에 Anything I can do for you? 의 완전한 문형은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이다 .
문장에서 Is there 은 생략한다. 이는 회화체에서 자주 사용한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788>

遊(あそ)びに行っていい?

놀러가도 돼?

A:今から**遊(あそ)びに行っていい?**
B:いいよ。でもなにする?
A:ゴロゴロ
B:ビデオでも借(か)りよう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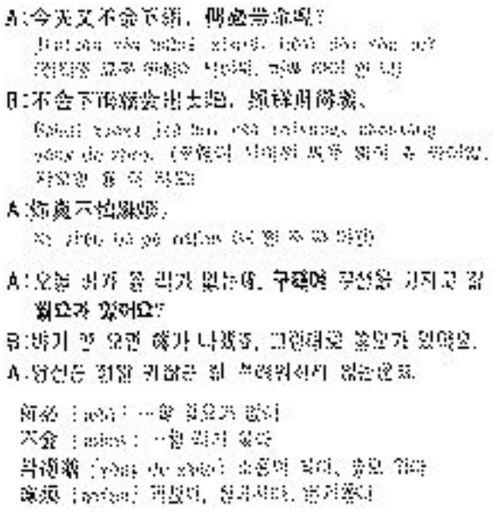
A:지금 **놀러가도 돼?**
B:괜찮아, 근데뭐할까?
A:그냥 뒹굴지 뭐
B:비디오라도 빌릴까?

ゴロゴロ : 집에서 할 일 없이 뒹구는 것을 표현
(ごろ寝(ね) : 집에서 이불도 깔지 않고 잠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 준비가 전혀 없이 잠자는 것)
借(か)りる : 빌리다

니하오 쭝구워 <506>

何必

구태여…할 필요가 있는가?



한자 이야기 <506>

知行合一 (지행합일)

알 지, 행할 행, 합할 합, 하나 일

지행합일(知行合一)은 아는 것(認識)과 행동하는 것(實踐)은 일치(一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말이다.

실천을 중시하였던 명대의 왕양명(王陽明)이 주장하였던 학설이다. 이 말은 '먼저 알고 뒤에 행한다'는 주자(朱子)의 선지후행(先知後行)의 반대 되는 개념이다. 지식과 행위(行爲)는 동일체이기 때문에, 진정한 지(知)란 반드시 행(行)을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은 진실한 앎 즉 '진지(眞知)'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왕양명은 "지(知)는 행(行)의 목적이고, 행(行)은 지(知)의 실제 수행이다. 또 지(知)는 행(行)의 시작이고, 행(行)은 지(知)의 완성이다"라고 하였다.('傳習錄') 여기서 '지'는 처음부터 마음속에 들어있는 양지(良知)이므로, 행위는 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양자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이다. 예를 들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惻隱之心)이 있으므로 우물에 빠질 것 같은 어린아이를 구해주는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행위를 통하여 아는 것이 외부로 드러나게 됨이다.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